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 :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매개효과

서현주[†]

한국고용정보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전문대(2-3년제) 및 대학교(4년제)에 재학 중인 770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서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 주요어 :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취업스트레스, 취업준비행동

[†] 교신저자 : 서현주,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팀,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Tel: 043-870-8301, E-mail: hjseo75@keis.or.kr

서론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자신의 직업 및 취업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동안에 사회적인 독립, 인생관 확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선택과 같은 어려운 성인기 과제에 직면한다(김희진, 2001).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행동이 요구된다. 취업준비행동은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나가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제경, 김동일, 2004). 특히, 취업준비행동은 구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입사지원과 면접, 시험응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하며(이승구, 이제경, 2008), 이와 같은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대학생 시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다(김봉환, 1997).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실업률 증가, 역량기반의 고용 및 채용시장의 변화, 직업세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여러 가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이현림, 2007). 실제로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보고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대학생들은 학업 및 취업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상담을 통해서 호소하는 주요 영역도 학업과 취업문제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관우, 남진열, 2012; 이은희, 2004.; 이창식, 김윤정, 2004). 이처럼 대학생 시기의 학생들은 졸업 후 불확실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준비행동을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스트레스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김명옥, 방영숙, 2012). 그리고 이러한 취업스트레스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상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특히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다(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그리고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정의석, 노안영, 2001)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서 적극적인 진로과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크다(이상희, 2012; 이용길, 강경희, 2011). 하지만 반대로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것은 진로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취업스트레스를 겪게 되지만, 이들 모두가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

는 것은 아니며, 취업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의 강도도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Gore & Eckenrode, 1994)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개인의 상황적 요인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는 단순히 취업준비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는 다른 여러 변인들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 다양한 국내 연구들(고경필, 심미영, 2014; 김명옥, 방영숙, 2012; 박정하, 민일식, 2013; 이현림 외, 2008; 황지영, 고미나, 2015)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 관계가 다양한 진로변인들 즉 진로성숙, 진로자기효능감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 지를 확인하고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또 다른 변인으로서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살펴보기 보다는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함께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고경필, 심미영, 2014; 표은경, 2009)이 있고, 이와 다르게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로성숙, 불안, 진로자기효능감 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이 있다(이현림 외, 2008; 이학균, 2013). 이처럼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를 보면,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의 관계, 진로성숙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그리고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 진로성숙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 등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먼저,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결과에서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을 강화시켜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진로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유리, 2006). 하지만, 많은 연구결과에서는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진로성숙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경필, 심미영, 2014; 김은주, 최경원, 2012; 박선희, 박현주, 2009; 이현림 외, 2008; 최윤

미, 이문희, 2011).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진로태도성숙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상희, 2012),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성숙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홍, 2001; 소연희, 2011). 하지만 개인이 진로에 대해 성숙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강원덕, 안귀여루, 2010; 어윤경, 2010) 진로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진로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진로성숙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진로성숙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필, 심미영, 2014; 이현림 외, 2008).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들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취업스트레스, 진로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에서 보면, 진로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완충요인 중 개인적 자원으로 학업수행, 대처양식, 동기, 진로문제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기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Gall, Evans, & Bellerose, 2000). 즉 진로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황지영, 고미나, 2015). 우선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자기효능감 간에 부적 관계가 있고, 취업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고, 취업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강수정, 2012; 신영희, 1994; 이미경, 2004; 이용길, 강경희, 2011; Solberg & Villarreal, 1997; Torres & Solberg, 2001).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결과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김영태, 2015),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평수, 김공, 서석운, 김영남, 2012). 다음으로 진로자기효능감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에서는 일관성 있게 진로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박중길, 이환, 2006;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2012; 양진희, 김봉환, 2008; 주명진, 김정남, 2011). 또한 진로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진로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연, 이숙정, 2013; 송현심, 홍혜영, 2010; 이상희, 2012; 한주원, 2013; 황지영, 고미나, 2015). 이처럼 기존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대학생들이 취업준비행동을 할 때, 진로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매개변인으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London(1997)은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진로자기효능감이 낮고, 반대로 진로스트레스가 낮은 사람은 진로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여 진로행동 수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취업스트레스, 진로자기효능감,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자기효능감에 대체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진로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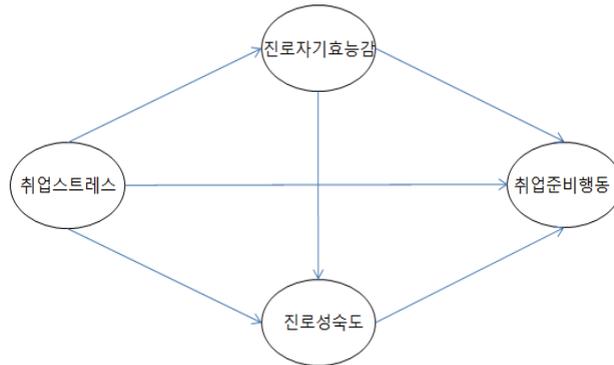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에서는 취업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진로자기효능감 또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연구에 의하면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의 약 40%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연구들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을 예측하는 데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진로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상희, 2006; 조명실, 최경숙, 2007; 탁승현, 김성희, 구혜령, 2012; Kornspan & Etzel,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어떤 진로변인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가능한지를 단편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취업준비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업스트레스와 실천적 노력인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진로변인 특히 진로성숙 및 진로효능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개별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과정에서 받는 취업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더불어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기존 선행연구 통해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를 [그림 1]과 같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

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4.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이중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대(2-3년제) 및 대학교(4년제)에 재학 중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명을 제외한 770명이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비율은 남학생이 357명(46.5%), 여학생이 410명(53.5%)로 성별에 따른 표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 139명(18.1%), 2학년이 319명(41.5%), 3학년 147명(19.2%), 4학년 163명(21.3%)이었다. 연구대상의 연령범위는 19-29세이며, 평균연령은 21.25세였다.

<표 1> 연구대상 - 성별 및 학년 분포

학년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1학년	70(9.1)	69(9.0)	139(18.1)
2학년	141(18.4)	177(23.1)	318(41.5)
3학년	64(8.3)	83(10.8)	147(19.2)
4학년	82(10.7)	81(10.6)	163(21.3)
학년 및 성별이상			3(0.4)
전체	357(46.5)	410(53.5)	770(100.0)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기도가 266명(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상도(205명, 26.6%), 충청도(132명,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연구대상 - 지역별 분포

지역	빈도	퍼센트
서울/경기도	266	34.6
충청도	132	17.1
강원도	37	4.8
경상도	205	26.6
전라도(제주포함)	130	16.9
합계	770	100.0

2. 측정도구

1)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 CMI)’을 참고하여 개발한 황성원(1998)의 취업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척도는 학업의 스트레스 요인, 성격의 스트레스 요인, 학교환경의 스트레스 요인, 가족환경의 스트레스 요인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72문항, 3점 척도(아주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졌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취업스트레스 문항의 Cronbach- α 는 .965였으며, 학업스트레스 .847,

성격스트레스 .940, 학교환경 스트레스 .861, 가족환경 스트레스 .889였다.

2)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한국고용정보원(2010)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의 하위검사 중에서 취업준비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직업정보를 얻는 방법, 정보의 종류, 직업탐색을 위한 노력과 강도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비공식적 직업탐색, 공식적 직업탐색, 취업노력의 지속성, 취업노력 강도,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 직업탐색의 총 6개 하위요인 40개 문항,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한국고용정보원(2010)의 연구에서 전체 취업준비행동의 Cronbach- α .96이었으며, 하위척도에서는 .674~.942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956이었으며, 공식적 직업탐색 .843, 비공식적 직업탐색 .876, 예비적 직업탐색 .704, 적극적 직업탐색 .951, 취업준비강도 .671, 취업준비노력 .859로 산출되었다.

3) 진로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대학생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다시 요인분석하여 3개 하위척도 15개 문항을 추출하여 개발한 박정하와 민일식(2013)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측정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목표선택(5문항), 문제해결(5문항), 미래계획(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박정하와 민일식(2013)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 α .765 이상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는 .902였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목표선택 .815, 미래계획 .754, 문제해결 .804로 나타났다.

4)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2010)의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의 하위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워크넷을 통해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 진로발달검사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기존 청소년 진로발달검사의 진로성숙도 관련 요인 중 진로행동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요인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계획성, 독립성, 자신지식(자기이해)의 3개요인, 총 17개 문항, 6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2010)의 연구에서 전체 진로성숙도의 Cronbach- α 는 .87이고, 하위요인에서 .63-.78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의 Cronbach- α 는 .855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계획성 .761, 독립성 .708, 자신지식 .809로 산출되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목적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에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제조건 검토, 모형검증, 계수검증의 절차를 따라 수행하였다(박선미, 박병기, 2014; 서영석, 2010).

먼저, 전제조건 검토를 위하여 다변량분석 가정과 측정모형을 검토하였다.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형적합도와 요인계수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 뿐만 아니라 RMSEA(Root Mean Error of Approximation),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SRMR(the Standardized Root-Mean-Square Residual)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중 RMSEA, CFI 그리고 SRMR 지수가 표본의 비정상성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유용한 적합도 지수라 할 수 있다(Hu, Bentler, 1999). RMSEA는 절대적 적합지수로 .05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며 SRMR은 .08보다 작으면, 상대적 지수인 TLI, NFI, CFI는 .90이 넘으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계수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중매개변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이를 사용한 이유는 sobel test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큰 표본에 적합하여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거나 작은 표본에서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구해진 매개효과와 경우 95% 신뢰도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한다(박선미, 박병기, 2014; 서영석, 2010; 홍세희, 2009; shroul & Bolger, 2002).

결 과

1. 전제조건 검토

1) 기술통계 및 다중공선성 진단

다변량 분석의 기본 가정으로 변인들간 관계성 여부와 다중공선성, 변인들의 정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측정변수 간 상관,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연구 변인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스트레스, 진로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 역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스트레스는 진로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과의 상관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분산팽창계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모두 5이하로 나타나 그 관계성이 과도하지는 않아 적당한 관계성 가정이 만족된 것으로 판단된다(박선미, 박병기, 2014).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대우도 추정방법은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데, 측정변수들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Kline, 2010).

<표 3>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취업준비 행동	취업 스트레스	목표 선택	미래 계획	문제 해결	계획성	독립성	자신 지식
취업준비행동	1							
취업스트레스	.204**	1						
진로 자기 효능감	목표선택	.307**	1					
	미래계획	.322**	-.218**	.680**	1			
	문제해결	.445**	-.155**	.617**	.693**	1		
진로 성숙	계획성	.401**	-.151**	.672**	.592**	.554**	1	
	독립성	.125**	-.179**	.476**	.406**	.315**	.483**	1
	자신지식	.243**	-.217**	.616**	.579**	.452**	.639**	.506**
M	129.512	108.427	18.192	17.696	16.691	27.008	18.797	27.764
SD	32.264	26.070	2.979	2.799	3.180	4.224	2.741	4.156
왜도	0.142	0.826	0.255	0.257	0.237	-0.132	-0.070	-0.257
첨도	-0.119	0.143	-0.099	0.349	0.426	-0.129	-0.453	-0.056
VIF		1.073	2.613	2.596	2.142	2.315	1.473	2.101

** . $p < .01$

2) 측정모형분석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에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NFI .923, CFI .935, TLI .921로 모

두 .90 보다 크게 나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SRMR .0607로 .80보다 작게 산출되었고, RMSEA 역시 .079로 .08 이하의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p)$	df	NFI	CFI	TLI	SRMR	RMSEA
측정모형	563.177(.000)	98	.923	.935	.921	.0607	.079

또한, <표 5>에서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와 더불어 모든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은 .77-.84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취업준비행동은 .53-.88, 취업스트레스는 .72-.90, 진로성숙은 .59-.84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모든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이 .5이상으로 나타났고, 이 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6개 측정변수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수를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p
진로자기효능감	→ 목표선택	1.015	0.834	0.043	23.663	***
진로자기효능감	→ 미래계획	0.953	0.77	0.04	23.639	***
진로자기효능감	→ 문제해결	1	0.835			
취업준비행동	→ 공식적 직업탐색	0.893	0.829	0.031	29.001	***
취업준비행동	→ 비공식적 직업탐색	1.278	0.762	0.05	25.365	***
취업준비행동	→ 예비적 직업탐색	0.646	0.679	0.03	21.397	***
취업준비행동	→ 적극적 직업탐색	1.571	0.733	0.066	23.917	***
취업준비행동	→ 취업준비강도	0.19	0.525	0.012	15.292	***
취업준비행동	→ 취업준비노력	1	0.882			
취업스트레스	→ 학업스트레스	0.798	0.722	0.035	23.037	***
취업스트레스	→ 성격스트레스	2.149	0.899	0.067	32.1	***
취업스트레스	→ 학교환경스트레스	1.121	0.854	0.038	29.822	***
취업스트레스	→ 가족환경스트레스	1	0.858			
진로성숙	→ 계획성	1.105	0.841	0.049	22.763	***
진로성숙	→ 독립성	0.501	0.587	0.032	15.753	***
진로성숙	→ 자기자신	1	0.773			

2. 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외생변수, 진로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매개변수,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가 NFI, CFI, TLI 각각 >.9이며,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RMSEA, SRMR이 각각 <.08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홍세희, 2000),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NFI, CFI, TLI가 각각 .923, .935 .921로 적합도 지수가 .9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적합했으며, RMSEA, SRMR 역시 각각 .079, .0607로 <.08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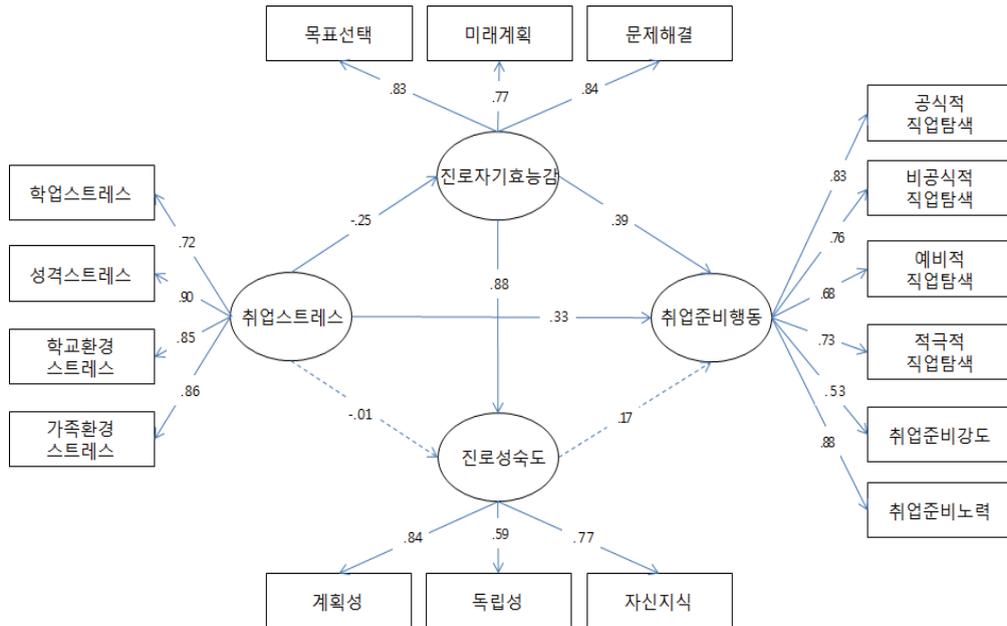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	$\chi^2(p)$	df	NFI	CFI	TLI	SRMR	RMSEA
연구모형	563.177(.000)	98	.923	.935	.921	.0607	.079

각 구조경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7>에서와 같이 구조경로 추정치를 산출하였고, 경로를 도식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스트레스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성숙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 및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로성숙도에서 취업준비행동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	p
진로자기효능감	← 취업스트레스	-0.156	-0.245	0.026	-5.986	***
진로성숙도	← 취업스트레스	-0.011	-0.012	0.027	-0.419	0.675
진로성숙도	← 진로자기효능감	1.258	0.881	0.057	21.917	***
취업준비행동	← 진로자기효능감	0.763	0.393	0.222	3.435	***
취업준비행동	← 진로성숙도	0.229	0.168	0.156	1.469	0.142
취업준비행동	← 취업스트레스	0.407	0.331	0.047	8.654	***



[그림 2] 구조모형 분석결과(표준화 회귀계수)

3. 매개효과 계수검증

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즉 취업스트레스→진로자기효능감→취업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진로성숙도→취업준비행동 및 취업스트레스→진로자기효능감→진로성숙도→취업준비행동의 각 개별경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매개경로를 나타내는 팬텀변수를 설정하고 Bootstrapp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경로에서 제시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각 개별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추정값은 -0.119이었으며, 신뢰도 95%에서 신뢰구간이 -0.198 ~ -0.068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검증 결과 추정값은 -0.003, 신뢰도 95%에서 신뢰구간이 -0.024 ~ 0.068로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추정값이 -0.045이고 신뢰도 95%에서 신뢰구간이 -0.104 ~ -0.01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8> Bootstrapping을 적용한 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p	95% 신뢰구간
취업스트레스 → 진로자기효능감 → 취업준비행동	-0.119	0.031	0.000	-0.198 ~ -0.068
취업스트레스 → 진로성숙도 → 취업준비행동	-0.003	0.008	0.604	-0.024 ~ 0.011
취업스트레스 → 진로자기효능감 → 진로성숙도 → 취업준비행동	-0.045	0.26	0.009	-0.104 ~ -0.01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관계로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경험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고경필, 심미영, 2014; 표은경, 2009)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및 대학생활 적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윤명숙, 이효선, 2012; 이숙정, 유지현, 2008)이지만,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것이 진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때론 스트레스가 긍정적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도 못했을 과업을 분발할 수 있게 하여 성취할 수 있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스트레스는 중요하고 생산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문숙재, 김정욱, 1991)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진로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진로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와 더불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취업준비행동에 진로자기효능감이 매개한다는 다른 연구결과들(강명숙, 방은령, 2014; 박고운, 이기학, 2007; 박소연, 이숙정, 2013; 송현심, 홍혜영, 2010;

이상희, 2012; 황지영, 고미나, 2015)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게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진로성숙도 역시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연구결과(고경필, 심미영, 2014; 이현림 외, 2008)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도 진로성숙도가 직접적으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어윤경, 2010), 기존의 연구결과들 사이에도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는 못 하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일관되지 않는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진로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이기학, 이학주, 2000; 이상희, 2006; 조명실, 최경숙, 2007; 탁승현 외,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각각의 개별 매개효과만이 아니라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을 이중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그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업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데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 결과는 행동적 측면인 취업준비행동의 촉진을 위해서 정서적 측면인 취업스트레스와 인지적인 측면의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모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사이의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향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이중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취업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구체적인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행동을

하게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는 교육과정 및 상담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생들이 취업준비 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취업스트레스를 겪게 되므로 이들이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취업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에 다양한 매개효과가 작용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에 취업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도 취업준비행동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대학생이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과정에서 행동 측면의 변화에 관심기울일 뿐만 아니라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와 같은 구체적인 매개변인을 평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취업스트레스를 유지하면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증가시키는 개입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취업준비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취업스트레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활동과정에서 이들 변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변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매개효과만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였고 이를 통한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로써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고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시켜준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취업스트레스,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 국한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이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조사대상이 임의적으로 표집된 바, 연구 결과의 일반화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대학생 전체 학년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각 대학유형별, 학년별, 남·녀, 취업스트레스 수준별 등 집단의 차이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여 각 집단별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집단별 구체

화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로변인들은 연령이나 학년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들로 종단설계를 통해 연령이나 학년별로 변화하는 진로변인들에 대한 면밀한 인과성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방법은 모두 자기보고의 질문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양적분석에 설문지의 방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과 편리함은 있으나 보다 다양한 방법의 자료수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행동측면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다양하게 파악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 어떤 속성인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맞게 표준화된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검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표준화된 검사의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숙, 방은령 (2014).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443-467.
- 강수정 (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불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유리 (2006). 무용정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 고경필, 심미영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고관우, 남진열 (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4(2), 149-168.
- 김남홍 (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옥, 방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태 (2015).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778-2788.
- 김은주, 최경원 (2012). 대학생의 우울과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9(2), 231-239.
- 김평수, 김공, 서석운, 김영남 (2012).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0, 47-71.
-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 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평택대학교, 5, 369-393.
- 문숙재, 김정옥 (1991). 가정자원관리. 서울: 동명사.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선미, 박병기 (2014). 매개효과 연구의 동향분석과 새로운 방향 탐색. 교육심리연구, 28(1), 41-70.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소연, 이숙정 (2013). 여대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관계성이 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3), 611-628.
- 박정하, 민일식 (2013).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충남소재 관광학부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5(5), 323-343.
- 박중길, 이환 (2006). 진로자기효능감이 무용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문화 과학연구지, 13, 1-11.
- 서영석 (2010). 상담심리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소연희 (2011). 사범대학생의 자기결정욕구,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의 구조적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0(2), 117-134.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영희 (1994).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대처와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19-3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 :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매개효과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지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어윤경 (2010). 진로성숙도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실현의 관계: 의사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지*, 24(4), 1029-1046.
- 윤명숙, 이효선 (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0), 127-136.
- 이미경 (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8(2), 399-417.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승구, 이제경 (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용길, 강경희 (201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결정효능감 분석-공학 및 사회계열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4(2), 60-67.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107-123.
- 이창식, 김윤정 (2004).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의 중재효과: 남녀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2), 183-213.
- 이학균 (2013).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불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림 (2007). *진로상담*. 서울: 양서원.
-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4(4), 59-80.
- 정의석, 노안영 (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33, 85-101.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주명진, 김정남 (2011).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27, 157-174.
- 최윤미, 이문희 (2011). 진로성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 탁승현, 김성희, 구혜령 (2012). 대학생의 가족 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53-65.
- 표은경 (2009). 여대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용정보원 (2010). 대학생 취업준비행동검사 개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주원 (2013).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서학논총*, 22(2), 117-140.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Bootstrapping 방법의 다양한 적용. http://www.seheehong.com/data/Bootstrap_Hong.pdf에서 검색.
- 황성원 (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 고미나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4(2), 135-150.
- Gall, T. L., Evans, D. R., & Bellerose, S. (2000). Transition to first-year university: Patterns of change in adjustment across life domains and ti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4), 544-567.
- Gore, S., & Eckenrode, J. (1994).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e Equation Modeling*, 6, 1-55.
- Kline, R. B. (2010). *Principle and practise of structure equation me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Kornspan, A. S., & Etzel, E. R. (2001). The relationship of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o career maturity of junior college student athle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2(2), 122-13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olberg, V. S., & Villarreal, P. (1997). Examination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stres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 among hispanic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9(2), 182-291.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Torres, F. B., & Solberg, V. S. (2001). Role of self-efficacy, stress,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upport in Latino college student persistence and healt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1), 53-63.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eo, Hyon Ju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data of 770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were collected for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sults showed that employment stress a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directly. Second,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ere was no mediation effect of career maturity in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Finally,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ouble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what has been learned through the analyses, this study proposed advices for succeeding studies in career consulting and career guidance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 : Career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Employment Stres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